

中共의 육상油田개발 현황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沿岸探査부진 영향

中共은 西方側 石油會社들에게 自國의 육상유전 탐사에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또 다른 開放의 門을 열려고 하고 있다.

中共에너지 관계전문가들은 中共이 석유생산의 정책과 수년간의 탐사활동저조에 자극받아 西方會社들과 陸上油田의 共同生産계약 체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분명히 지난 1년동안 西方會社들에 의한 沿近海 海上시추가 별 성과가 없었던 데에 자극을 받은 때문이다.

『中共은 海上油田개발은 보다 장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石油需要는 증대되고 있어 中共은 陸上石油생산을 늘리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외국 석유회사들을 유치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美國 商務省관리, 다니엘 D. 슈타인氏는 말했다.

조심스런 反應

석유업계전문가들은 中共의 수많은 육상유전 개발에 관한 中共과의 協商은 이제 막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워싱턴에서 「차이나 에너지 벤처즈」라는 자문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킴 우다드氏는 『조만간에 골드러쉬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치 않는다』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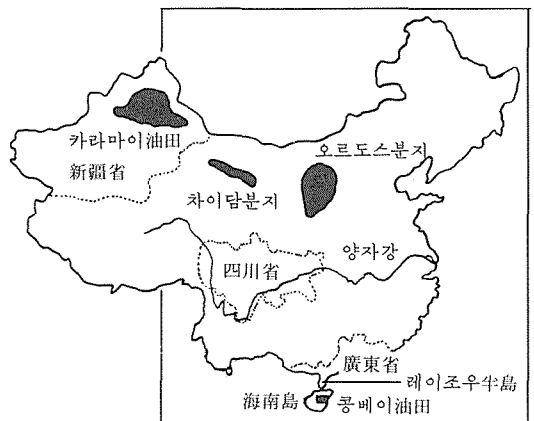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육상유전개발에 관

해 中共관리들과 협상을 벌여온 메이저 및 中小獨립계회사들은 中共이 同사업을 착수할 준비를 완료했다고 전하고 있다.

『맨처음 접촉했을 때는 奧地를 제외하고는 육상 개발에 대해 中共은 완전히 그 가능성을 배제했지만, 지난 수개월 동안에 태도를 바꿔 외국회사 유치에 적극 관심을 표명해 왔다』라고 美國 세브론社의 탐사·생산담당理事인 로렌스 W. 펑크하우저氏는 말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지난 수년동안 中共의 석유업계가 停滯를 면치 못한 결과이다. 東北에 집중된 中共의 석유업계는 하루 2~2.3백만배럴을 생산하고 있다(사우디는 하루 3.5백만배럴 생산규모임). 1984년도 中共의 原油 및 석유제품 수출규모는 50

中共의 陸上油田 합작개발 有望地域



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에 본부를 둔 国立美国·中共무역위원회가 추산한 바에 의하면, 1980~1984년 사이에 석유생산량은 1% 증가했고, 가스생산량은 오히려 거의 5%나 감소하였다. 1970~1975년 사이에는 석유와 가스 생산량이 각각 年 20% 및 25%의 증가율을 보였다.

北京의 自足感

中共에너지개발 관계전문가들은 최근 몇년동안의 커다란 문제는 석유생산량에 관한 北京政府의 自足感 및 연이은 개발투자 감소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의 国立위원회 에너지전문가이며 前 北京 주재 商務官이었던 데이비드 데니氏は 『1970년대 후반에 中共에너지 매장량 증가율은 하락했다』 고 말했다.

이러한 비관적인 상황이 中共의 연근해개발에 외국회사 참여를 촉진시킨 계기가 되었다. 약 30개의 西方石油會社들이 연근해에서 시추중이지만, 처음에 나온 결과들이 별로 좋지 않았다. 많은 評價井들로부터 少量의 석유 및 가스가 나오게 되자 업계전문가들은 상업성있는, 아울러 수출가능한 매장량을 발견하기에는 당초 생각보다 훨씬 더 시간을 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共은 여전히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가장 큰 石油未開發지역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美国에서 발간되는 업계전문지 Oil and Gas Journal誌에 의하면, 中共은 石油확인매장량이 약 190억배럴이고, 가스확인매장량이 300兆 입방피트이다(사우디는 확인매장량이 石油가 1,690억 배럴이며, 가스는 中共의 4 배 규모이다).

커다란 潛在力

中共은 海上, 陸上이 모두 다 探查가 불가능할 정도로 광대 무변하기 때문에 현재 추정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자원이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 열대성기후지역인 海南島로부터 新疆省에 이르기까지 中共에는 유망석유부존지역이 많이 널려 있다.

육상탐사의 외국회사 참여는 제일 먼저 海南島에서 그 초치가 받아들여졌다고 몇몇 석유관계관리

들이 말했다. 그들은 海南省정부가 콩베이陸上油田을 개발하기 위해 외국회사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었다고 말했다.

日本国立石油會社가 내몽고의 오르도스盆地 탐사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etna Life & Casualty社의 子會社로서 휴스턴에 본부를 둔 Geosource社는 新疆省의 차이담분지를 탐사하기로 계약했으며, 프랑스의 Cie. Generale de Geophysique社는 新疆省의 카라마이油田을 탐사하고 있다. 그 외에, 또 다른 日本會社인 出光興産측도 中共으로부터 남쪽 廣東省에 있는 레이조우半島의 지질조사를 수행해 주도록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이상의 모든 계약들은 共同生産계약이 아닌 用役계약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共同生産계약 하에서는 참여회사가 개발지역으로부터 생산된 石油나 가스에 대한 持分權을 갖게 된다.

외국회사들을 끌어들이는 또 다른 곳은 四川省으로 이 지역은 대규모 天然가스田이 있다. 다국적석유회사들이 同가스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美国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獨立系 가스생산회사인 GHK社가 四川省개발문제를 北京정부와 협의해 오고 있다.

내키지 않는 協商

美国석유메이저 中 일부회사는 자기들이 中共의 육상유전개발에 관심은 갖고 있지만, 大部分의 회사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려고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中共當局과의 협상을 벌여야 할 지 여부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

세브론社의 펑크하우저氏는 자기 회사는 中共과 공식협상을 해오지 않았으나, 관심은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한 美国의 텍사코社는 『탐사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규모의, 미탐사되거나 일부 탐사된 內陸盆地가 많기 때문에 中共大陸지질구조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텍사코 및 세브론社는 육상유전탐사에 대한 자신들의 결정여부는 北京당국과의 계약내용 및 탐사지역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中共당국은 用役계약의 형태로부터 착수했다. 우리는 용역계약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뜻을 내내

주지시켰다. 우리는 석유회사지 운영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핑크하우저氏는 말했다.

그는 또한 세브론社는 中共석유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中共이 성공을 거두었던 지역」인 東北 및 中部지역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차이나 에너지 벤처즈社의 우다드氏는 中共이 그와 같은 지역에 관해 외국회사들과 共同

生産계약을 맺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中共이 공동생산코자 하는 지역은 매우 위험부담이 높고, 소규모이며, 메마른 사막 기후이다』고 말한다. 그는 그러한 지역은 양자강 남쪽과 西部중공지구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中共의 西部지역은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있는 곳이지만 실제 기초시설이 돼 있지는 않다. *

〈아시아 월 스트리트저널 85. 3. 1〉

□ 世界石油市場 □

先物市場이 원유가격 불안정의 主要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현물원유시장에서 가격이 점차 불규칙적으로 변동할 것이라는 의혹은 있을 수 없었다. 또한 이론적으로 先物원유시장의 발전이 원유가격 안정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있어서 원유의 선물거래효과는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스턴 Charles River학회(CRA)의 Philip K. Verleger가 주장하였다.

CRA Petroleum Economics Monthly誌 2월 12일자 발행본에 게재된 글의 서두에서 Verleger는 현물 가격이 점차 더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에 관한 기존의 설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증하였다.

-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OPEC회원국들은 1982년 이후 생산프로그램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생산쿼터량을 꾸준히 준수하여 왔다. 따라서 만약 가격 불안정성이 생산통제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원유 가격은 이미 안정되었을 것이다.
- 석유소비의 감소가 OPEC의 가격통제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물원유가격이 원유소비량과 함수관계에 있다면 1984년 말보다 원유수요 감소가 보다 심각했던 1982년 또는 1983년초에 가격불안정이 절정을 이루어야만 했다.
- 시장에 있어서 OPEC의 점유율 감소가 OPEC의 가격통제력을 약화시켰다는 주장 역시 부당한 것 같다. 왜냐하면 만약 OPEC의 산유량을 가령 10백만b/d로 대폭 감소시킨다면 가격은 극적으로 앙등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Verleger는 기존의 설명들이 부분적으로는 옳으나 가격불안정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면, 대신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원유가격이 점차 불안정해지는 이유를 先物시장의 성장에 돌리고 있다.

첫째, 先物원유시장은 원유공급의 대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OPEC의 가격안정화 노력을 크게 위협하

고 있다. 원유공급은 先物시장에 내놓아진 현물로서의 원유와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투기업자들에 의하여 판매되는 장부상의 원유를 포괄한다. 문제는 장부상의 원유판매가 단기적으로 실제 원유의 현물거래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과, 아울러 원유수출국의 생산 감소가 先物원유시장에서의 단기적 투기거래 증가에 의해 상쇄될 경우 생산감축에 의하여 가격변동의 폭을 줄이려는 OPEC의 시도가 좌절된다는 점에 있다. Verleger는 OPEC이 산유량을 16백만b/d로 줄인 작년 10월 이후 투기업자들이 0.25~0.5백만b/d의 원유판매를 증가시켜, 이만큼이 OPEC의 생산감소 효과를 상쇄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先物시장의 성장(계약물량이 1983년 7월말 5백만 배럴에서 1983년 12월말 22백만배럴 그리고 1984년 12월말 49백만 배럴로 증가)은 정유회사들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고시하는 美國의 고시가격제도를 침식해 오고 있다. 그간 이러한 고시가격들은 매우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약세였던 先物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독립계 정유회사들이 고시가격을 미래수준으로 할인하여 先物제약을 체결할 수 있음으로써 고시가격 제도에서 이탈할 수 있었다.

셋째, 先物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거래단위규모를 작게 하고(최소 1,000배럴까지), 또한 원유시장에의 진입에 관한 통제가 석유산업이 하던 것에서 중개업계가 하는 것으로 전환됨에 따라 투기에 의한 가격변동이 용이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곧 많은 신규공급자가 시장에 출현하여 가격을 하락시켰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Verleger는 先物시장의 성장이 투기업자들에게 투기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투기업자들이 장부상 거래되는 원유의 공급을 0.25~0.5백만b/d까지 증가시켰으므로 OPEC의 생산감축효과를 상쇄시켰다고 밝혔다.